

## 수학 비타민 플러스

이 책은 수학교육과를 나오신 박경미 선생님이 지으신 책으로 실생활, 자연 등에서 볼 수 있는 수학에 대해 재밌게 말로 풀어 써내신 책이다.

내가 평소에 궁금해 하던 것이랑 이 책에 실려있는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항상 궁금해 했다. 대체 바코드는 찍는 기능 빼고는 무슨 기능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이다. 우선 바코드에는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어떤 종류의 물건인지에 대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바코드를 찍기만 하면 그게 어떤 물건인지 바로 알 수 있게 한다. 이 사실에서 바코드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알게 되었다. 바코드 밑에 숫자는 1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  $\square\square\square$ 는 제조국가 그 다음  $\square\square\square\square$ 는 제조업자  $\square\square\square\square\square$ 는 상품 마지막  $\square$ 는 체크숫자를 나타낸다. 그런데 마지막 체크숫자에 수학적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에 수학은 우리 모든 곳에 존재 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다. 바코드의 열세 자리 중 홀수 번째 자리에 있는 수들은 그대로 더하고, 짝수 번째 자리에 있는 수들을 더한 후 세배 한 전체 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체크숫자를 정하는 것이다. 이 체크숫자는 인식오류를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우리가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 것에 이렇게 큰 수학적의미가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666의 진실은 성경에 나오는 666의 주인공을 찾는 것인데 후보로는 네로 황제, 빌게 이츠, 컴퓨터, 인터넷이 있다. 그런데 이 것 들의 이름에서 666이 나오는 방법은 다른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억지스럽기도 하였고 이런 식으로 666을 찾는다 면 세상에 있는 물건들도 다 666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많은 이야기에는 수학과 관련된 것이 참 많다. 우리가 수학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면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과 하나 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리고 내 진로와 크게 관련 있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 현상을 발견하는 것으로 내가 수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그냥 친구 같은 친한 존재라 생각하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든 것에 수학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사물 하나하나에 유심히 관찰해서 그 것에는 어떤 수학적 요소가 들어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다.

수학을 단지 시험을 보기 위해서만 공부를 했었더라면 이 책은 수학은 단지 교과서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준 책이었던 것 같다.

